

광주·전남 주택대출 가파른 증가

올 1분기 증가율 각각 17.5%, 21.9%...전국 평균보다 3~4배 높아

집값 하락세 ...‘하우스 푸어’ 양산 우려

광주·전남지역의 주택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 ‘하우스 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대출금액이 66조9870억원으로 같은 기간 21.9%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는 예금은행 주택대출금액이 48조336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5%

가 늘면서 증가율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전남의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5.2%)보다 3~4배 이상 높다.

은행보다 대출문턱이 낮은 반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의 주택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광주 39.7%), 신용협동조합(광주 20.7%), 새마을금고(광주 27.8%) 등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주택대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대 매가 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6월(1.7%)부터 1%대의 집값 상승률을 이어가며 주요 상승지역으로 꼽혀왔다. 전국의 평균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거나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세다.

광주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광주 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이주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했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대출까지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 엑스엑스포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모두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어 문제다.

광주는 지난 5월 0.7%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6월(0.3%), 7월(0.1%)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전남은 집값 상승률이 지난 4월에는 0.4%, 5월 0.2%, 6월 0.0%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7월에는 -0.2%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하웅 과장은 “광주·전남의 경우 소득대비 집값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주택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대출을 받고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어려움을 겪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가 숨은 인재”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코스모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숨은인재 찾기 ‘히든카드’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현대차와 관련한 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우일렉 인수 우선협상자 동부 내정

응찰 3곳중 3700억원 가장 높은 가격 제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그룹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제품을 품은 경우 국내 최초로 일관제철소와 가전 회사를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대우일렉 지분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그룹을 내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3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날 마감된 본일찰에는 동부그룹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 스웨덴 일렉트로닉스 등 3곳이 응찰했다.

이 중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인수가격으로 경쟁자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인 37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은 자금 확보를 위해

KTB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했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됨에 따라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채권단 측과 세부협상을 거쳐 9월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2주간의 확인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께 대우일렉을 손에 쥐게 된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인수전에 뛰어들어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사업 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를 계열사 중 동부하이텍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동부제철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쓰이는 강판을 생산한다. 또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봇과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일렉의 해외 네트워크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대우일렉의 영업망을 활용해 그룹 계열사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우일렉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예상 매각금액인 3500억원보다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대우일렉 최대주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지분 57.4%를 갖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이 6.7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그동안 다섯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과거 대우전자 시절 삼성·LG와 함께 가전시장을 주름잡다가 외환위기 후 대우그룹 해체로 시련을 겪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상반기

소주 출고량 늘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에서는 하이틴진로(주)와 보해의 소주 출고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에서는 하이틴진로(주)가 지난해 대비 무려 18% (15만3500상자, 30분 기준 460만병 증가)의 신장세를 보였다. 보해도 지난해 동기대비 약 2% (8만상자, 24분 기준 192만병 증가)매출 증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16억9025만병 (60만8490㎤)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390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명당 40병 가량 소주를 마신 셈이다. 소주 출고량이 늘어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탓에 소비자들이 소주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체별로는 7억 9891만병을 출고한 하이틴진로가 47.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굳게 지켰다. ‘처음처럼’을 앞세운 롯데주류가 15.2%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고 무학은 2억2780만병으로 13.5%를 차지했다. 전남의 보해는 대구·경북의 금북주 다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워크아웃 건설사 자금 적기에 지원한다

금감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가이드라인 마련

워크아웃 건설사를 두고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이 자금지원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금융’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이견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문제점을 막으려는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됐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속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속자금을,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양측이 절반씩 지원하고서 회계법인 등 제

삼사의 실사를 거쳐 정산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제3분 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해 PF사업장 계과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이면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6번째 부분파업...총 생산손실 1400억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13일 시작한 부분파업은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고, 이로 인해 광주공장의 생산손실이 1400억원에 달했다.

22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에 따르면 이날 광주공장을 비롯해 경기 소하리공장 등에서 주야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주간조는 2시간을 근

무한 뒤 오전 10시30분에 조기 퇴근했고, 야간조도 2시간 근무하고 오후 10시30분 퇴근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계획됐던 자동차 1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55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아차 노조는 전날에도 주야 4시간씩 퇴근 파업을 진행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이달 10, 17, 21, 22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는 일단협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공동 투쟁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측은 이로 인한 생산손실이 광주공장만 1만1000여대(1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기아차는 현재 임금 기본급 대비 8.2% 인상,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를 두고 교섭을 벌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35.19 (-8.03)
▲	코스닥지수	492.89 (+1.17)
▼	금리 (국고채 3년)	2.89% (-0.01)
▲	원·달러 환율	1,135.90원 (+4.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다세대·연립주택 자산가치 급락

다세대·연립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가계부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다세대·연립주택 경매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주택(살거주 기준) 평균 가격은 1억1569만원에서 1억1812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올랐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5343만원으로 전년의 1억5445만원보다 102만원(0.66%) 떨어졌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소폭 올랐다. 그러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10년 평균 8196만원에서 2011년 6798만원으로 17.1%나 급락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텅텅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사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텅텅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존전기요금사용잔액에 비해

설치시 청구요금

월 납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설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후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